

경남교육청,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 시동 걸다 '꿈의 디딤돌'에서 자신의 꿈을 외치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 주관으로 5월 24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담당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방향과 세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향후 공동(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초단시간(15시간미만)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잡고 향후 예산상황과 인력운용 전략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율이 88%(8,042명)이며 무기계약 미전환율은 12%(1,089명)으로 무기계약 미 전환 직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

이다. 무기계약 미전환자 1,089명 중 근무기간 1년 미만인 514명,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575명이다. 근무기간 1년 미만 514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률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의무용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분야는 직접고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해 무기계약전환 제외 대상자로 돼 있으나, 향후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직종은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새정부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교육과정 차원에서 여가를 절충해 이렇듯 방법을 찾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부에서 지시했다.

함양마천중, 나의 꿈 발표대회

경남 함양 마천중학교(교장 이등만)는 24일 이 학교 도서관에서 전교생이 함께하는 제2회 '나의 꿈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대회에 앞서 학생들의 꿈을 단단히 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의를 담은 꿈의 디딤돌 '꿈' 기념식을 가졌다. '마천골에서 키운 꿈이 아름답게 갈고 닦아 문화예술로 꽃 피우다', '마천골에서 키운 꿈 깨닫고 반듯하여 학문으로 꽃 피우다', '마천골에서 키운 꿈 되고 등글이 세게될까 피우다'라는 3개의 문구를 마천식(石)에 새겨 꿈의 디딤돌을 제작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나의 꿈 발표대회'는 전교생이 참여하였으며 1학년은 한글과 영어 중 선택을 하여 발표하였고, 2, 3학년은 진로 파악이외에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영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진로수업을 통한 진로탐색, 국어수업을 통한 발표준비, 기술가정수업을 통한 발표 도구 제작, My Dream'을 작성하는 영어작문수업 등 다양한 교과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꿈 발표를 지원했다.

이번 꿈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인생설계를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받았고, 진로정보를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진로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자



기주도적 인생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 같습니다. 한글로 발표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부분 학생이 영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한 게 정말 대견스럽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꿈 발표대회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의 전통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호기기자 khh@

'김홍식 작가와의 만남'

마산제일여중, 독서진흥행사 실시

경남 창원 마산제일여자중학교(교장 심희자)는 25일 교내 도서관에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경남 독서한마당 선정도서인 '안중근 재관청 장관기'의 저자 김홍식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창원도서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다양한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책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독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즐거운 소풍의 장을 마련하고자 나아가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확산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홍식 작가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라", "라"는 당부로 끝맺은 이번 만남은 역사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미리 준비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및 기원절영과 작가 친필 사인회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다.

2학년 학생은 "역사 전체는 하나의



흐르는 강물이며, 세세한 사건은 물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물방울, 즉 작은 사건이라도 소중히 행하는 안 되고, 넓은 시야에서 강물이 잘 흘러가도록 지켜보고 노력해야 한다는 작가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제일 교감은 "이번 작가와의 만

남은 독서교육과 진로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통합 교육이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특강"이라며 "학생들의 새로운 독서 문화 경험과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는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독서진흥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제일여중은 이번 행사뿐 아니라 마산도서관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를 활용하여 오는 9월 '제3회 독서 도전 골든벨-풀림' 놀고, 책이랑 나누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김호기기자 khh@

창원양덕초 "세계를 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진행

경남 창원 양덕초등학교(교장 황홍숙)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과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주간(5월 20~26일)을 열었다. 이 주간행사의 하나로 '여러 나라 어머니 언어로 책 읽기'와 '여러 나라 의상 체험' 행사를 했다.

이중언어강사 '장서연' 중국어 선생님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추아령' 베트남어 강사님을 모시고 '가시고 이빠의 사랑'이라는 동화책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순서로 들리주었다. 양덕초등학교에서는 이날날을 정하여 매주 아침 활동시간에

다문화 관련 책 읽기와 동영상 시청을 하는 중이다.

다문화 교육 주간에는 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교원 대상 다문화 교육 연수가 이뤄졌다. 문화체험 활동도 여러 나라 의상 체험하기, 여러 나라 어머니 언어로 책 읽기, 동영상 시청 및 생각 나누기, 다문화 관련 도서를 읽고 그림 그리기 또는 만화 그리기 대회가 이루어졌다. 5월 25일에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치러졌다.

의상체험을 한 3학년 학생은 "중국 출신인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나라의 옷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의상을 입어 보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hh@



마산제일여중, 1학기 학부모초청 수업공개 시행

경남 창원 마산제일여자중학교(교장 심희자)는 5월 18일 학부모초청 수업공개회를 했다.

바쁜 와중에도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자녀 교육 특장에 참여해 제일여중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교시에는 학부모들이 직접 각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수업을 참관하는 수업공개가 진행되었고, 3교시에는 '내 자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상담전문가 이연자 강사의 자녀 교육 특강이 이어졌다.

마산제일여중은 학부모들이 직접 수업을 참관한 후 작성한 참관록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교과 교사들의 수업 개선에 반영해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일 교감은 "수업공개회를 통해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수업을 지켜보고 함께 참여할 기회를 가져 뜻깊었다.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hh@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매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통재정을 상실해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흡연만이 심각성을 알려고
보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칭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을 비교

담배가격	흡연율
대한민국 2,500원	대한민국 22.3%
일본 1,000원	일본 13.8%
스페인 8,200원	스페인 23.6%
미국 4,200원	미국 12.3%
대한민국 8,400원	대한민국 12.3%
영국 8,400원	영국 12.3%
프랑스 11,500원	프랑스 12.3%
아일랜드 14,500원	아일랜드 12.3%

각국담배 광고문구 비교

한국	중국	유럽연합	우루과이
RAISON	SMOKING CAUSES MOUTH CANCER	TONGUE CANCER	FUMANDO, SE PUERE MORIR

김해능동중, 김해 YMCA로부터 전교생 도서 기증받아

경남 김해 능동중학교(교장 정기영)는 지난 22일 김해 YMCA로부터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도서 950권을, 창원미소교육으로부터 '어린왕자 멘토 이야기' 도서 350권을 기증 받은 자리를 빛뜨란 도서관에서 가졌다.

이날 능동중학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는 이후 독후 활동 대회 및 독서 골든벨 등의 교내 대회를 개최해 다채로운 독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김해 YMCA 김우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기증의 날 5권을 맞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증한 도서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예

상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행복탄탄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영 교장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진로 탐색을 위해 도서를 기증해준 관계 기관에 뜻깊은 감사사를 전달했고, 더불어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는 전교생에게 배부되어 시춘기 시절을 지내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을, '어린왕자 멘토 이야기'는 진로 수업과 융합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호기기자 khh@

경남도교육청, 맛있는 학교급식 컨설팅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올해부터 식단관리, 급식시설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등 4개 분야 학교급식컨설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중 '조리 컨설팅 집합 연수'는 최근 발령받은 조리사들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경남유아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전통 식문화를 계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인스턴트나 외식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만족스런 학교급식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향이 부족한 조리사의 심적 부담을 덜 수 밖에 없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급식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를 선정해 컨설팅을 추진한다. '조리 컨설팅 집합 연수'는 크게 4개 영역으로 실시된다.

